

# 우리투자증권 “10년내 자기자본 5조... ‘초대형 IB’로 도약”

## TPE타워서 출범 후 첫 간담회

계열사 공동펀드 활용 PF 투자  
향후 2~3년 내 2차 M&A 추진  
2028년까지 운용자산 15조 목표

우리투자증권이 2조원 규모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는 5일 서울 영등포구 TPE타워에서 개최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회사 청사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5년 차에 연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10년 내 자기자본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 대표는 “계열사 공동펀드를 활용해 IB 영업에 집중해 이른 시일 내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그룹이 10년 만에 가지게 되는 증권사로서 자본시장 내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핵심 계열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PE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진수 경영기획 본부장(상우), 이위한 리스크관리 부문장(전우),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양완규 투자은행(IB) 부문 부사장, 박기웅 세일즈엔트레이딩(S&T) 부문 부사장, 심기우 리테일 부문 부사장. /손진영 기자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기업과 개인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춘 초대형 IB’라는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IB ▲S&T ▲리테일(주식중개 및 자산관리) 등 각 부문 간 균형 잡힌 사업 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남 대표는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해 ‘IB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행, 우리벤처파트너스 등 그룹사와 협력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는 ‘기업 생애 주기별 토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리테일 펀드 판매와 우리종합금융의 I

B 업무를 지속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대 2조원 규모의 계열사 공동펀드를 조성해 우량PF에 투자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도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채 주관 및 인수 기회 선점 ▲PE 초기 자본 투입으로 주관권 확보 ▲실물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등 IB 영업을 활성화해 그룹사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우리투자증권이 발행어음과 계열사 공동펀드를 통해 운용 가능한 영업가능 자본은 약 4조원 수준으로 다른 초대형 IB에 준하는 영업자본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를 기반으로 증권시장 내 고성장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은행 ‘뉴 윈(New WON) बैं킹’과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연결하는 슈퍼앱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S&T부문과 리테일 부문 목표도 제시했다. 박기웅 S&T부문 부사장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조성자로 성장해 2028년까지 운용자산

15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출범 초기에는 RP, CMA 등 국내 상품 기반 S&T 역할 재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기우 리테일 부문 부사장은 “기존 펀드슈퍼마켓 기능에 주식, 채권 중개가 가능한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고객자산가 3만명, 고객자산 43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 M&A나 유상증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 대표는 “2~3년 안에 2차 M&A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탁자산 등 우리투자증권이 단기적으로 확충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연내에 MTS를 공개할 예정이며, 초고액자산을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프라이빗 बैं킹(PB) 영업의 거점 센터로 활용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점 영업 확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AI·반도체 ETF 수익률 추락에도 ‘개미 순매수’

하락률 상위 20개 중 5개 AI·반도체  
빅테크 실적 우려, AI 투자 의구심 영향

올들어 시장을 주도했던 인공지능(AI)·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역으로 AI·반도체 ETF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5일 코스콤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체 ETF 하락률 상위 20개 중 5개가 AI·반도체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가 37% 떨어지면서 1위를 기록했다. TIGER반도체TOP10레버리지는 35%가량 하락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23.91%), TIGERAI반도체핵심공정(-22.07%), 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22.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금리인하를 시사했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아래에 그쳤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실적 우려

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 출시되면서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급등한 AI 반도체 관련 ETF 등의 매수세에 가담했던 개미들은 이 같은 급락장에도 관련 ETF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들은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을 251억 원어치 사들였으며,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도 96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밖에도 KODEX 미국반도체MV(57억원), KODEX반도체(54억원), KODEX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52억원) 등을 매입했다. 한달로 기간을 넓혀도 개미들은 K

ODEX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688억원),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517억원), TIGER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373억원) 등을 사들이는 등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증권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은 올해 여름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장세로 넘어가면서 이미 주도권은 ‘금융·조선·기계·소비재’ 업종 주변 종목들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NH투자증권 ‘나무증권’

### 주식모으기 기능 개편

고객니즈 반영 서비스 점점 확대  
거래 수수료 면제 등 이벤트 진행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주식모으기’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고객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 면제, 최강야구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식 모으기는 국내 및 해외주식을 고객이 원하는 일정한 주기와 수량만큼 설정해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주식은 100원부터, 해외주식은 최소 1000원부터 원하는 금액, 원하는 주기에 고객의 투자 계획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NH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중개형 ISA 계좌도 주식모으기가 가능하도록 거래 가능 계좌를 확대했고, 계좌별 모을 수 있는 종목을 필터링 형태로 제공하여 거래 편의성 또한 개선했다.

나무증권은 주식모으기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올해 12월 말까지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환전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나무증권 계좌를 보유한 기존·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국내·해외주식 온주(1주)·소수점 상관없이 주식 모으기(적립식) 서비스를 통해 주문하는 모든 종목에 대한 거래(매수) 시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외화 환전 시 기존 소수점 거래에만 적용되던 환전 우대 혜택을 온주(1주), 소수점 거래 시로 모두 확대 적용된다.

또한 NH투자증권이 메인스폰서십으로 참여 중인 최강야구 브랜드를 활용한 주식모으기 이벤트도 선보인다. 최강야구팀이 우승 시 100만원, 홈런 시 200만원이 적립되며, 주식모으기 약정 개수가 5000개 돌파시마다 50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허정윤 기자

# 삼성액티브운용, “배당성장액티브 ETF, ‘한국형 슈드’로 육성”

KoAct 액티브 ETF 1주년 간담회  
1년만에 3360억 순자산 성장이뤄  
3분기 밸류업 활용 액티브 ETF 출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5일 한국형 배당성장 상장지수펀드(ETF)를 육성하고 3분기 발표될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KoAct(코액트) 액티브 ETF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나올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액티브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도 장기 연금형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은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를 시작으로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KoAct 배당성장액티브’, ‘KoAct 글로벌기후테크액티브’, ‘KoAct 테크핵심소재공급망액티브’, ‘KoAct AI인프라액티브’ 등 6개 상품을 상장해 운용 중이다.

민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6개 액티브ETF를 투자자분들께 선보이며 순자산도 가장 빠르게 3360억원으로 성장해 전체 ETF운용사 26개 중 11위로 자리매김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액티브 ETF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KoAct’(Korea Active ETF)의 이름에 걸맞게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투자’를 실행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기존 출시 상품들 가운데 ‘KoAct 배당성장액티브’ ETF를 한국형 ‘슈드’(SCHD)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슈드’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록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배당 성장형 ETF다.

슈드가 배당 외에도 추가로 현금흐름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감안해 투자 대상을 엄선하는 것처럼 KoAct 배당성장액티브 역시 국내 기업들 중 향후 배당성장 확대 등으로 배당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효율성과 현금흐름면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편입한다. 이 상품은 올해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순자산인 1700억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 /뉴스

삼성액티브운용은 올해 3분기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이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상품 출시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의 밸류업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 패시브 상품보다 액티브 상품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